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KIA, 어센시오 앞 심동섭 나온다

〈외국인 마무리 투수〉

빠르고 과감한 승부수… 불안한 불펜 '믿을맨'

삼성과 경기 첫 등판 공 8개로 1이닝 마무리

좌완 심동섭이 '호랑이 군단'의 승리 메이커로 뜬다.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KIA 불펜이 시범경기를 통해 테스트를 받고 있다.

KIA는 외국인 선수 카드 한 장을 마무리에 사용하면서 뒷심을 강화했지만 문제는 허리다. 회심의 마무리 어센시오를 마운드에 불러내기 위해서는 승기를 넘겨줄 중간계투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좌완 심동섭이다. 선동열 감독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심동섭의 성장세를 높게 평가했다. 성장세도 성장세지만 중간계투진이 갖춰야할 배짱과 경험을 따져도 심동섭은 필승조의 핵심이다.

심동섭은 지난 9일 삼성과의 시범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다.

계속된 비에 첫 등판에서는 본의 아니게 마무리 역할을 맡았다. 예정됐던 등판이 우천취소될까봐 우선 어센시오가 8회 투입됐고 경기가 계속되면서 심동섭까지 마운드에 올랐다.

첫 등판에서 심동섭이 아웃 카운트 3개를 처리하는 데 든 공은 8개였다.

초구부터 스트라이크게 집어넣은 심동섭은 첫 타자 우동균을 삼진으로 잡았고 김태완은 투수 앞 땅볼로 돌려세웠다. 김헌곤도 초구 승부에서 1루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했다. 마무리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빠르고 과감한 심동섭 특유의 승부가 빛을 발했다.

심동섭은 "불펜에서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막상 마운드에 서니 마음이 편해졌다. 앞에 타자가 있으면 오히려 집중이 되고 공이 잘 던져진다"고 첫 등판에 만족감을 보였다.

아프지 않고 마운드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만족스럽다. 심동섭은 2012시즌 중반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1년 정도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여름 마운드에 복귀했지만 적응이 필요했고 팀 성적도 끝없이 추락하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었다.

심동섭은 "1군에 복귀 했다는 것이 좋았지만 지난 시즌은 아쉬움이 더 많았다. 아프지 않고 공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며 "올 시즌은 기록에 대한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부상없이 풀타임을 뛰는 게 내 목표다. 아프지 않고 내 공을 던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프로에서의 5번째 시즌, 욕심은 줄었지만 여유는 늘었다.

수술로 마운드를 떠나보면서 마운드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당장 눈 앞의 결과보다는 더 멀리 한 시즌을 보고 또 미래를 보는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제구력을 가다듬으면서 마운드에서의 여유도 늘었다.

심동섭은 "볼넷을 준다고 배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정말 제구가 안 돼서 그랬던 것이다. 공격적인 피칭을 하려고 한다. 올 시즌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폼도 가다듬고 릴리스 포인트도 잡았다"며 "제구가 더 좋아졌다. 경기를 하는 게 즐겁다. 즐겁게 시즌을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피겨여왕, 마지막 인사

김연아, 5월 아이스쇼서 은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5월 아이스쇼를 자신의 '은퇴 무대'로 꾸민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5월 4~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특설링크에서 김연아 등의 피겨 스타들이 출연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김연아가 이번 아이스쇼를 공식적인 현역 선수 은퇴무대로 장식하고,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응원해 준 국내외 팬들에게 보답하는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아가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은반 위에서 팬과 만나는 자리를 일종의 '은퇴식'으로 꾸미는 셈이다.

올댓스포츠는 "은퇴 무대에 걸맞은 아이스쇼 주제와 내용, 무대 구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팬들이 은퇴를 축하하고, 김연아가 이에 보답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에서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가 현역 은퇴무대인 만큼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뚫어야 산다" 9일(현지시각) 러시아 소치 샤이바아레나에서 열린 2014 장애인동계올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썰매하키) 미국과의 경기에서 정승환이 미국 수비를 뚫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B조 2차전에서 미국에 0-3으로 졌다. 2위를 노리는 한국은 11일 이탈리아와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류현진, 호주 개막전 출격

LA다저스, 23일 애리조나와 경기 첫 선발 등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한국인 왼손 투수 류현진(27)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다저스의 개막 2선발로 출격한다.

올해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곳은 미국이 아닌 호주 시드니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10일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22~23일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개막 2연전에 클레이턴 커쇼와 류현진 순으로 선발 등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23일 오전 11시에 올시즌 첫 정규리그 마운드를 밟는다.

지난해에도 1선발 커쇼에 이어 2선발로 류현진을 출격시킨 다저스는 올해도 같은 순서로 마운드를 운용한다. 다저스는 애초 커쇼에 이어 우완 잭 그레인키를 개막 시리즈에 내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레인키가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종아리 통증을 호소, 정규리그 등판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류현진에게 차례가 돌아왔다.

매팅리 감독은 호주 개막전 이후의 로테이션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막 시리즈가 호주에서 잡히면서, 다저스의 경기 일정에는 중간 휴식일이 많아진 상태다. 호주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쉬다가 28~30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세 차례 시범경기를 치르고, 31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정규리그 첫 '본토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보약, 홍삼은
북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 주 환